



## 유럽 보험사기 규모, 지금보험금의 10% 수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럽보험협회(Insurance Europe)는 2011년 유럽의 보험사기 규모가 국가별로 편차가 있지만, 평균적으로 볼 때 지급된 보험금의 약 10%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음.
  - 보험사기(잠재적 보험사기와 적발된 보험사기의 합계) 규모는 시장의 형태, 인기 보험종목, 정부의 보험사기 접근방법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어떤 국가는 잠재적 보험사기와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구분하여 파악 및 대응하는데 주력하는가 하면, 어떤 국가들은 보험사기 적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기도 함.
  
- 영국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이 매년 늘고 있지만, 보험사기 역시 매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못한 잠재적 보험사기 규모도 감소하지 못하고 매년 19억 파운드(22억 유로)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.
  - 영국보험협회(ABI)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9억 1,900만 파운드에서 2011년 9억 8,300만 파운드로 7% 증가하였음.
  - 2011년 보험회사들이 적발한 보험사기 건수는 연간 138,814 건(매주 2,670건)으로, 2010년 보다 5% 증가하였음.
  - 보험사기 적발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감소 규모는 2010년 5.0%에서 2011년 5.7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
- 독일, 핀란드, 스웨덴 등 북부 유럽에서도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.
  - 독일보험협회(GDV)는 최근 스마트폰과 테블릿 PC의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데, 이 금액 중 절반 이상이 허위 사건인 보험사기라고 밝힘.
  - 핀란드의 경우 2012년 성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협회(FFI)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27%는 주변의 보험사기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했는데, 이는 2010년 설문조사 결과인 25%보다 소폭 상승한 것임.

■ 특히 스웨덴은 최근 차량 방화를 통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됨.

- 스웨덴 보험협회(Larntjänst)에 따르면 2011년 보험사기 건수는 6,200건이며,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 규모는 4,000만 유로인데,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의 10~20%는 허위 사건이며, 80~90%는 과장된 사건이라고 밝힘.
- 2012년 가을 남부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한 대 이상의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,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차량 구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이들 차량의 연식은 10년 이상이나 차량 소유 기간은 3개월 미만이었으며 온라인 옥션에서 헐값에 구매되어 가명으로 등록·보험에 가입되었음.

■ 유럽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보험료 상승, 보험금 지급 지연, 추가 보험사기 조장 등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함.

-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과 보험사기 조사에 투입된 비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,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보험금 지급은 지연되었고 범죄조직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면서 추가적인 보험사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독일보험협회(GDV)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비용이 매년 40억 유로를 상회하였고, 영국보험협회(ABI)는 보험사기 증가 추세로 인해 매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58유로 상승하였다고 발표
- 덴마크보험협회(F&P)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 조사(filing) 과정에서 총액 6,700유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요청을 일시 중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힘.
-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최소 214건의 차량 보험사고를 연출한 범죄조직이 적발되었는데, 스웨덴 대다수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들 범죄조직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.

■ 유럽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간의 정보 교환, 국가 간 공조, 보험사기 조사기관 창설, 정부당국과의 공동대응, 보험사기 적발기술 개발 및 훈련, 보험정보기관의 정보 활용 등을 권고함.

- 유럽 13개 국가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사기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, 이들 중 10개 국가는 보험회사가 정부와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, 북유럽 국가들은 보험사기 트렌드, 이슈, 공동 대응과 관련된 국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.
-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989년 ALFA(국립보험사기조사기관), 2006년 IFB(보험사기방지청)을 설립하였고, 스웨덴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부서에 보험사기 적발 부서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아일랜드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보험사고 기록을 보험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한 후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음.

(Insurance Europe)